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관한 연구
- K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Ornaments Wear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Kongju National University -

이은희 · 전경란
청주교육대학교 강사 · 공주대학교 교수

Lee, Eun Hee · Jeon, Kyoung Ran
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lothing behavior and ornaments wear of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 of this study consists of 241 college students who were attended in Kongju National University. SPSSWIN program was utilized to calculate frequency(N), mean value(M) and standard deviation(SD) for statistical analysis. Differences among the populations were examined through T-test, F-test, χ^2 -t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loth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sex, grade. In general, female students showed higher score than did male students in clothing interest, clothing conformity, self-estimation about clothing, clothing dependence, clothing aesthetic, clothing modesty. A first-year student had high tendency in clothing interest.

2. The wear of ornaments had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variables. Buying the ornaments, most of students got information in show window and emphasized on design. Male students wanted to have the ornaments of shoes, watch, hat & necklet, but female students wanted to have the ornaments of shoes, earring, necklet & hairpin.

3. Clothing behavior has influenced university students' ornaments wear.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ppeared to be interested in clothes were apparently influenced by peers when selecting ornaments. Ornaments were usually bought in the department store, while belts were among the most popular choices. Students who stressed color when purchasing ornaments showed a high level of interest in and dependence on clothe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can conclude that university students' taste in clothing behavior and use of ornaments wear depend on several different factor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outline the shift in clothing attitudes during adolescence. In order to understand university students' behaviour concerning clothes, much guidance and various studies on the subject are much recommended.

Key words : clothing behavior, ornaments wear.

Corresponding author : Lee, Eun Hee, Tel. (042) 284-7761, leh1967@hanmail.net

Corresponding author : Jeon, Kyoung Ran, Tel. (041) 850-8302, krjeon@knu.kongj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복은 개인의 자아개념, 태도, 가치관, 성격 등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의복은 단순히 생활 필수적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에서 사회적 측면을 대변하는 사회적 참여와 자신의 권위나 자기표현의 수단인 생활문화품으로 그 역할이 이행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경제성장과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욕구충족의 장식적 방식에 따라 의생활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생활의 변화는 개인과 연령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데, 청년기의 경우 의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므로 의복을 통해 만족감 혹은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과도기에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의복으로 해결하려 한다(박혜선·김화순, 1998a). 특히 대학생들은 공간적·시간적으로 생활권이 확대되면서 생활의 장이 넓어지게 되고 청소년기적 자아관에서 벗어나 자기를 객관적으로 지각하며 사회적 자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의복을 통한 사회인으로서의 승인을 요구하게 된다. 아울러 의복에 대한 높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동료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로서 스스로의 의복이나 외모에 대하여 만족할 때 사회활동에 자신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며, 의복을 이성에 대한 매력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의복에 대한 관심과 자신감의 변화는 스스로의 가치 세계가 확립되고 사고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되어 자아가 확립되면서 동료나 사회의 승인이 점차 덜 중요시되고 의복행동은 유행이나 동조로부터 개성의 추구로 옮겨지게 된다(이은영, 1995; 신상옥외 3인, 2000).

이와 같은 자기 표현의 욕구가 강한 대학생기의 의생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패션에 대한 흥미, 지식, 동조성에 대한 욕구, 경제적인 욕구, 편안함에 대한 욕구, 위신에 대한 욕구,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 등을 포함한 의복 관련 욕구와 가족의 주기, 개인의 생애주기의 기본적인 욕구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소위 신세대 개념으로 불리는 대학생들의 의생활 경향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자기 연출이 우선 시 되면서 외모에 대한 자기 확신감과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매체로서 장신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이은경·박은순, 1998). 하지만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생의 전반적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장신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의생활 태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복행동과 이제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장신구 착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K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의복행동과 장신구착용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봄으로써 대학생의 전반적인 의생활태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의생활의 교양교육 측면에서 올바른 지도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연구대상 표본집단 추출 시 충청남도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대학생에 대한 연구결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복행동(Clothing Behavior)

개인의 의복행동은 단순히 신체보호를 위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욕구나 관심, 습관 등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나타난다(고애란·김양진, 1996). 즉, 의복행동은 의복에 대한 선택, 착용, 습관 등과 관련된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는데, 의복행동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고 책자마다 그 기준이나 견해가 다양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서 각자의 방식대로 한계를 두어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의복행동을 의복에 대한 의복관심도, 의복의 동조성,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성,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심미성, 의복의 정숙

성으로 구분하였다(심경진, 1996; 박혜선·김화순, 1998; 최은영, 2000).

의복관심도(clothing interest)는 자신의 옷과 다른 사람의 옷에 대해 개인이 갖는 흥미 및 호기심, 의복의 유행에 대한 관심, 장신구와의 조화를 의미한다. 청년기의 경우 의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므로 의복을 통해 의복만족감, 혹은 의복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과도기에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의복으로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의복이 가진 많은 속성 중 사회적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며, 유행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임경복·임숙자·조진숙, 1995).

의복의 동조성(clothing conformity)은 친구나 집단의 규범에 준하여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소속감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는 의복행동을 말한다. Horn(1975)의 연구에 의하면 동조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며, 또한 역할이 정확하지 않는 행동의 실수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사회적 역할을 좀더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동료집단의 의복기준에 극도로 동조한다고 하였다.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성(self-estimation about clothing)은 자신의 의복의 착용상태, 의복 착용 방법, 장신구 착용방법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 박찬부(1981)는 자기평가에 있어서 개방적, 자기 비판적인 여대생은 단순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매우 정숙한 의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clothing dependence)은 의복이 주는 느낌, 기분, 분위기, 감정변화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의복행동이다. 의복의 요소는 착용자의 기분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즉 어떤 사회환경에서 의복을 잘 입었다고 느껴질 때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생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잘못 입었다고 느껴질 때는 불안해지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소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며, 의복을 통해 기분을 전환하는 등의 심리적 효과에 의존하게 된다(정희용, 1987).

의복의 심미성(clothing aesthetic)은 의복 착용시 자신의 신체적 외모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의복을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행동을 말한다. 심미성은 의복 자체의 다른 디자인, 색깔 등에 있어서 미적인 감각이나 의복에 있어서의 장식성을 자신의 신체와 외모가 조화를 이루도록 착용하여 외관의 아름다움을 성취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여져 왔으며, 넓은 의미로는 의복의 부수적이 장식적인 장신구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강선자, 1975).

임춘봉(1974)의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신체에 대한 자아개념은 의상의 미적 감각을 높은 반응을 보여 자신이 신체와 건강에 대하여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은 미적 감각을 충족시키는 의복을 입어 신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고, 남녀 대학생들은 의상 변인 중 심미성에 가장 높은 관심이 나타났다. 이명희(198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미성을 중요시하였다.

김광경(1973)의 여대생들의 의복에 대한 남자대 학생들의 관심에 대한 연구에서 심미성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나타났다. 신체 장애자와 건강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Feather Martin과 Miller(1979)의 의복에 대한 태도 변인 연구에서는 의복의 외양적인 태도가 육체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의복의 정숙성(clothing modesty)은 인간이 의복을 착용하는 여러 동기들 중의 하나로 그 기준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개인의 연령, 성별, 및 가치관 등에 따라서도 다르다. Flügel(1971)은 정숙성은 인간 행동을 억제하는 행동으로서 성적표현의 금지, 신체노출의 금지,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의복의 금지, 사회적인 성적욕망의 금지와 혐오감, 수치감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박혜선·김화순(1998a)도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예의성과 신체노출을 억제하는 정숙성의 개념을 포괄하여 성적 흥미와 관련된 신체노출을 피하며,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의복을 착용하고자 하는 태도라 생각하여, 노출이 심한 의복을 정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착용을 피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1학년 여대생을 대상으로 김광경(1973)의 한 연구에서 정숙성은 심미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실용성 및 종교적 가치관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임춘봉(1974)의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숙성과 동조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강혜원(1974)의 연구 결과, 정숙성을 주시하는 사람은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의

복착용 동기에 대한 김경희·임숙자(1983)의 연구에서 정숙성이 가장 높았다.

2) 장신구(Ornaments)

장신구는 몸치장을 하는데 쓰이는 기구, 보석 등 여러 가지 재료로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 만드는 공예품을 말하며(이희승, 1986; 최옥자, 1982), 목적에 가까이 접근(access)하는 의미로 액세서리라고도 한다(신상옥 외 3인, 2000).

박기완(1986)은 장신구를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의복처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부품으로 정의하였고, 임영미(1984)는 장신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조화미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대량생산되는 현대생활에 변화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신구 착용은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소품이 된다고 하였다.

장신구의 종류로는 백, 주머니, 벨트, 양말, 양산, 코사지(corsage), 패션·글라스(fashion glass), 팔목시계, 귀걸이, 펜던트(pendent), 브로우치(brooch), 반지, 헤어·악세서리, 넥타이·핀, 컵스·버튼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용을 목적으로 한 장신구와 장식을 목적으로 한 장신구로 구분되는데 실용을 목적으로 한 장신구로는 신발, 가방, 시계, 모자, 벨트, 장갑, 우산, 선글라스, 호출기나 핸드폰 등이고, 장식을 목적으로 한 장신구로는 반지,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 머리끈, 머리띠, 팔찌 등이 있다(任明美, 1984; 최은영, 2000).

이와 같이 장신구 착용은 의복에 있어서 중요한 부품으로 대량생산으로 인한 기성복의 획일화, 단순화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에 사용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수행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의복행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장신구 착용(선택, 구입, 소유)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의복행동은 장신구 착용(선택, 구입, 소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K대학교의 남녀대학생 30명을 임의로 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6월 1일에서 20일에 걸쳐 총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회수된 질문지 중 불성실한 것을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241명을 통계 처리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관련 선행연구(이은미, 1984; 심경진, 1996; 최은영, 2000)에서 인용한 것을 대학생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의복행동은 의복관심도, 의복의 동조성,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성,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심미성, 의복의 정숙성 등 6가지 행동을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각 Likert 5단계식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장신구착용 실태는 총 6문항으로 선다형 또는 직접 서술하는 형태로 조사하였다. 의복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구하여 각 측정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74 이상이었다.

4.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WIN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료의 일반적인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 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인 환경 변인과 의복행동, 장신구착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집단간의 차이는 변량분석(ANOVA)을 사용하여 F-test, T-test, 사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Chi-square(χ^2)검증을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환경을 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52.3%로 남학생(47.7%) 보다 많았다. 소속대학은 공과대학(37.3%), 인문사회과학대학(29.0%), 사범대학(25.3%), 자연과학대학(8.3%) 순으로 나타나 공과대학이 다소 높았다. 학년은 1학년(32.8%), 2학년(32.0%), 3학년(21.2%), 4학년(14.1%)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생활정도는 대부분 중류층이라고 응답한 학생수가 가장 많았으며(77.6%), 가정의 한달 수입은 130~160만원 미만이 21.2%로 가장 많았다. 한달 용돈은 10~30만원 미만이 79.1%를 차지하였다.

2. 대학생의 의복행동

1) 연구문제 1 : 대학생의 의복행동은 인구통계

〈표 1〉 성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행동	남 (N=115)		녀 (N=126)		T-Value
	M	SD	M	SD	
의복관심도	14.67	3.52	17.20	3.10	35.03***
동조성	14.82	3.03	14.87	2.59	.01
자기평가성	13.55	2.53	13.94	2.75	1.28
심리적의존성	15.99	3.01	18.79	2.78	56.37***
심미성	17.63	3.18	18.82	2.78	9.57**
정숙성	14.52	2.94	15.39	2.88	5.42*

*p<.05, **p<.01, ***p<.001

〈표 2〉 소속대학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행동	사범대학 (N=61)		인문사회과학대학 (N=70)		자연과학대학 (N=20)		공과대학 (N=90)		F Value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6.54	3.84	16.08	3.38	15.35	3.48	15.71	3.45	0.91
동조성	15.22 b	2.76	14.88 b	3.01	13.65 a	3.09	14.83 b	2.55	1.60
자기평가성	14.29	2.64	13.74	2.53	13.55	2.45	13.45	2.77	1.26
심리적의존성	17.63	3.64	17.74	3.20	17.45	3.21	17.11	2.90	0.59
심미성	18.62	3.18	18.20	3.36	17.85	2.56	18.14	2.76	0.46
정숙성	15.19	2.98	15.12	3.12	15.40	2.81	14.62	2.80	0.74

* a, b 표기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1) 의복행동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의복행동을 성별에 따라 알아본 결과가 <표 1>과 같다.

여학생이 의복관심도와 심리적 의존성에서 p <.001 수준에서 아주 유의적이었고, 심미성은 p <.01 수준에서, 정숙성은 p <.05 수준에서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동조성과 자기평가성에서는 평균점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평균치를 비교해볼 때, 남학생은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동조성, 의복관심도, 정숙성, 자기 평가성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여학생은 심미성, 심리적 의존성, 의복관심도, 정숙성, 동조성, 자기 평가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복행동의 심미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의복에 대한 자기 평가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 외모와 의복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의복 착용방법에 대하여는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학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의복행동	1학년 (N=79)		2학년 (N=77)		3학년 (N=51)		4학년 (N=34)		F Value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6.75	3.13	15.37	3.49	16.00	4.16	15.64	3.32	2.15
동조성	14.88	2.93	14.72	2.49	14.86	2.96	15.02	3.03	0.99
자기평가성	13.96	2.87	13.72	2.47	13.60	2.70	13.58	2.52	0.25
심리적인존성	18.26 a	2.84	16.55 b	2.92	17.56 a, b	3.83	17.44 a, b	3.22	3.83*
심미성	18.32	2.82	17.96	3.15	18.64	3.55	18.17	2.38	0.54
정숙성	15.18	3.02	14.94	2.73	14.45	2.96	15.35	3.16	0.86

* a, b 표기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p < .05

〈표 4〉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장신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

N(%)

변인		선택영향					비교
		가족	친구	자기자신	판매원	전체	
성별	남	5(2.1)	40(16.6)	60(24.9)	10(4.1)	115(47.7)	$\chi^2=4.79$ df=3 N. S.
	녀	12(5.0)	51(21.2)	57(23.7)	6(2.5)	126(52.3)	
소속 대학	사범대학	5(2.1)	30(12.4)	24(10.0)	2(0.8)	61(25.3)	$\chi^2=11.18$ df=9 N. S.
	인문사회과학대학	5(2.1)	25(10.4)	37(15.4)	3(1.2)	70(29.0)	
	자연과학대학	0(0.0)	5(2.1)	12(5.0)	3(1.2)	20(8.3)	
	공과대학	7(2.9)	31(12.9)	44(18.3)	8(3.3)	90(37.3)	
학년	1학년	5(2.1)	28(11.6)	40(16.6)	6(2.5)	79(32.8)	$\chi^2=13.28$ df=9 N. S.
	2학년	4(1.7)	24(10.0)	44(18.3)	5(2.1)	77(32.0)	
	3학년	6(2.5)	19(7.9)	21(8.7)	5(2.1)	51(21.2)	
	4학년	2(0.8)	20(8.3)	12(5.0)	0(0.0)	34(14.1)	
전체		17(7.1)	91(37.8)	117(48.5)	34(14.1)	241(100.0)	

(2) 의복행동은 소속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소속대학에 따른 대학생의 의복행동의 차이는 <표 2>와 같다. 소속대학에 따라 각 의복행동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3) 의복행동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3>은 학년에 따른 의복행동을 조사한 결과이다. 학년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에서는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심리적 의존성이 높게 나타났다. 심재엽(1987)의 학년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생활양식 조사에서 저학년의 경우 고학년 보다 보수적이며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고학

년이 유행을 더 따른다고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하였다.

2)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장신구착용(선택, 구입, 소유)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 장신구 선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장신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성별에 따라 장신구를 선택할 때 남녀 대학생 모두 자기 자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대학에 따라서는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장신구 구입정보와의 관계 N(%)

변인		구입정보	TV·라디오	신문·잡지	매장진열	친구	가족	전체	비고
성별	남		15(6.2)	24(10.0)	49(20.3)	25(10.4)	2(0.8)	115(47.7)	$\chi^2=8.78$ df=4 N. S.
	녀		10(4.1)	23(9.5)	74(30.7)	15(6.2)	4(1.7)	126(52.3)	
소속 대학	사범대학		2(0.8)	14(5.8)	28(11.6)	15(6.2)	2(0.8)	61(25.3)	$\chi^2=15.17$ df=12 N. S.
	인문사회과학대학		8(3.3)	12(5.0)	39(16.2)	9(3.7)	2(0.8)	70(29.0)	
	자연과학대학		1(0.4)	2(0.8)	15(6.2)	2(0.8)	0(0.0)	20(8.3)	
	공과대학		14(5.8)	19(7.9)	41(17.0)	14(5.8)	2(0.8)	90(37.3)	
학년	1학년		6(2.5)	13(5.4)	48(19.9)	11(4.6)	1(0.4)	79(32.8)	$\chi^2=23.88$ df=12 p < .05
	2학년		5(2.1)	16(6.6)	37(15.4)	15(6.2)	4(1.7)	77(32.0)	
	3학년		11(4.6)	7(2.9)	27(11.2)	5(2.1)	1(0.4)	51(21.2)	
	4학년		3(1.2)	11(4.6)	11(4.6)	9(3.7)	0(0.0)	34(14.1)	
전체			25(10.4)	47(19.5)	123(51.0)	40(16.6)	6(2.5)	241(100.0)	

<표 6>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장신구 구입시 중점을 두는 사항과의 관계 N(%)

변인		구입중점	가격	디자인	유행	색상	상품 이미지	품질	실용성	무응답	전체	비고
성별	남		22(9.1)	55(22.8)	11(4.6)	0(0.0)	3(1.2)	6(1.2)	18(7.5)	3(1.2)	115(47.7)	$\chi^2=14.85$ df=7 p < .05
	녀		13(5.4)	81(33.6)	7(2.9)	5(2.1)	1(0.4)	4(1.7)	13(5.4)	2(0.8)	126(52.3)	
소속 대학	사범대학		7(2.9)	33(13.7)	9(3.7)	0(0.0)	0(0.0)	2(0.8)	8(3.3)	2(0.8)	61(25.3)	$\chi^2=33.75$ df=21 p < .05
	인문사회과학대학		8(3.3)	47(19.5)	2(0.8)	2(0.8)	1(0.4)	1(0.4)	9(3.7)	0(0.0)	70(29.0)	
	자연과학대학		1(0.4)	11(4.6)	2(0.8)	0(0.0)	1(0.4)	3(1.2)	2(0.8)	0(0.0)	20(8.3)	
	공과대학		19(7.9)	45(18.7)	5(2.1)	3(1.2)	2(0.8)	1(0.4)	12(5.0)	3(1.2)	90(37.3)	
학년	1학년		7(2.9)	49(20.3)	4(1.7)	4(1.7)	2(0.8)	2(0.8)	9(3.7)	2(0.8)	79(32.8)	$\chi^2=23.48$ df=21 N. S.
	2학년		11(4.6)	43(17.8)	8(3.3)	0(0.0)	1(0.4)	1(0.4)	11(4.6)	2(0.8)	77(32.0)	
	3학년		12(5.0)	22(9.1)	3(1.2)	0(0.0)	1(0.4)	2(0.8)	10(4.1)	1(0.4)	51(21.2)	
	4학년		5(2.1)	22(9.1)	3(1.2)	1(0.4)	0(0.0)	2(0.8)	1(0.4)	0(0.0)	34(14.1)	
전체			35(14.5)	136(56.4)	18(7.5)	5(2.1)	4(1.7)	7(2.9)	31(12.9)	5(2.1)	241(100.0)	

있는 학생들이 주로 친구의 영향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대학생들은 모두 장신구 선택시 자기 자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4학년만 친구의 영향을 받고, 1·2·3학년에서는 자기 자신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장신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 자신과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장신구 구입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표 5>에서 보면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장신구 구입 정보와의 관계는 학년에 따라서만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남녀별로 보았을 때, 그 차이는 미비하였으나, 남학생은 매장진열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다음으로 친구, 신문·잡지 순으로, 여학생은 매장진열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다음으로 신문·잡지, 친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대학이나 학년에 따라 전체적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장신구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었고, 다음으로 신문·잡지, 친구의 순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3학년은 TV·라디오, 신문·잡지, 친구의 순으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 장신구를 구입할 때 대학생들은 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장신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정래·정명선(1999)의 연구와 최

〈표 7〉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장신구 구입장소

N(%)

변인		구입장소	백화점	전문점	재래시장	노점, 행사	무응답	전체	비고
성별	남		11(4.6)	63(26.1)	23(9.5)	16(6.6)	2(0.8)	115(47.7)	$\chi^2=11.96$ df=4 p < .05
	녀		12(5.0)	86(35.7)	7(2.9)	18(7.5)	3(1.2)	126(52.3)	
소속 대학	사범대학		6(2.5)	41(17.0)	6(2.5)	7(2.9)	1(0.4)	61(25.3)	$\chi^2=8.51$ df=12 N. S.
	인문사회과학대학		6(2.5)	38(15.8)	13(5.4)	12(5.0)	1(0.4)	70(29.0)	
	자연과학대학		1(0.4)	16(6.6)	1(0.4)	2(0.8)	0(0.0)	20(8.3)	
	공과대학		10(4.1)	54(22.4)	10(4.1)	13(5.4)	3(1.2)	90(37.3)	
학년	1학년		9(3.7)	57(23.7)	5(2.1)	7(2.9)	1(0.4)	79(32.8)	$\chi^2=14.88$ df=12 N. S.
	2학년		8(3.3)	41(17.0)	14(5.8)	12(5.0)	2(0.8)	77(32.0)	
	3학년		3(1.2)	30(12.4)	5(2.1)	12(5.0)	1(0.4)	51(21.2)	
	4학년		3(1.2)	21(8.7)	6(2.5)	3(1.2)	1(0.4)	34(14.1)	
전체			23(9.5)	149(61.8)	30(12.4)	34(14.1)	5(2.1)	241(100.0)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장신구 소유문양

N(%)

변인		소유문양	동물	식물	기하학	추상	무응답	전체	비고
성별	남		11(4.6)	8(3.3)	58(24.1)	30(12.4)	8(3.3)	115(47.7)	$\chi^2=7.80$ df=4 N. S.
	녀		10(4.1)	17(7.1)	48(19.9)	46(19.1)	5(2.1)	126(52.3)	
소속 대학	사범대학		8(3.3)	4(1.7)	29(12.0)	16(6.6)	4(1.7)	61(25.3)	$\chi^2=12.20$ df=12 N. S.
	인문사회과학대학		7(2.9)	10(4.1)	31(12.9)	21(8.7)	1(0.4)	70(29.0)	
	자연과학대학		1(0.4)	2(0.8)	8(3.3)	9(3.7)	0(0.0)	20(8.3)	
	공과대학		5(2.1)	9(3.7)	38(15.8)	30(12.4)	8(3.3)	90(37.3)	
학년	1학년		6(2.5)	5(2.1)	37(15.4)	37(12.4)	1(0.4)	79(32.8)	$\chi^2=16.74$ df=12 N. S.
	2학년		5(2.1)	7(2.9)	38(15.8)	23(9.5)	4(1.7)	77(32.0)	
	3학년		4(1.7)	8(3.3)	21(8.7)	14(5.8)	4(1.7)	51(21.2)	
	4학년		4(1.7)	5(2.1)	10(4.1)	9(3.7)	4(1.7)	34(14.1)	
전체			21(8.7)	25(10.4)	106(44.0)	76(31.5)	13(5.4)	241(100.0)	

은영(2000)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장신구를 구입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6>을 보면, 여학생이고, 인문사회과학 대학생일수록 장신구 구입시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전반적인 평균치를 비교해 볼 때, 전체의 56.4%가 장신구 구입시 디자인을 제일 먼저 고려하였고, 다음으로 가격, 실용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장신구를 구입할 때 디자인, 실용성, 가격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생들은 장신구 구입시 실용성 못지 않게 가격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장신구 구입에 중점을 두는 사항이 변화되어 가고 있

음을 보여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장신구 구입장소와의 관계는 <표 7>과 같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녀 대학생 모두 장신구 구입장소로 전문점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재래시장을, 여학생은 노점·행사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또한 소속대학이나 학년에 따라서도 대부분 전문점에서 장신구를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었다.

(3) 장신구 소유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선호하는 장신구 문양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10> 의복행동이 장신구 선택영향에 미치는 요인

선택영향	가족 (N=17)		친구 (N=91)		자기자신 (N=117)		판매원 (N=16)		F Value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6.00 b	3.04	16.30 b	3.50	16.12 b	3.42	13.31 a	4.23	3.45*
동조성	14.58 a, b	2.37	15.50 b	2.89	14.52 a, b	2.80	13.81 a	1.93	3.04*
자기평가성	13.23	2.72	14.54	2.39	13.18	2.77	14.00	2.03	5.00**
심리적인존성	17.29	3.38	17.36	3.08	17.75	3.22	16.00	3.42	1.47
심미성	17.35	3.85	18.29	3.16	18.43	2.69	17.68	3.71	0.82
정숙성	15.82	3.30	15.34	2.91	14.54	2.79	15.18	3.46	1.81

* a, b 표기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p < .05, **p < .01

<표 11> 의복행동이 장신구 구입시 정보원에 미치는 요인

구입정보원	TV, 라디오 (N=25)		신문, 잡지 (N=47)		매장진열 (N=123)		친구 (N=40)		가족 (N=6)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5.28	3.42	16.68	3.34	16.26	3.63	15.00	3.41	14.83	3.31	1.85
동조성	15.28	2.09	15.70	3.19	14.47	2.76	14.70	2.83	15.16	1.32	1.86
자기평가성	14.20	3.14	13.10	2.96	13.68	2.48	14.57	2.34	13.16	2.31	1.96
심리적인존성	16.80	3.27	17.57	3.04	17.79	3.16	16.75	3.37	17.00	3.74	1.14
심미성	18.08	3.22	18.48	2.50	18.44	2.92	17.65	3.57	17.33	4.50	0.74
정숙성	14.68	3.35	14.68	2.77	15.12	2.78	15.12	3.31	14.66	3.55	0.29

소속대학별로 자연과학대학생만 장신구 문양으로 추상 문양을 기하학 문양보다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44%가 장신구 문양으로 기하학 문양을 가장 좋아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소유하고 싶은 장신구와의 관계는 <표 9>와 같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신발, 시계, 모자, 목걸이를, 여학생은 신발, 귀걸이, 목걸이·머리핀, 가방 순으로 장신구를 갖고 싶어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p < .001).

전체적으로 대학생은 신발, 시계, 가방 순으로 장신구를 갖고 싶어하였으나, 소속대학, 학년에 따라서는 소유하고 싶은 장신구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3) 연구문제 3 : 대학생의 의복행동은 장신구 착용

(선택, 구입, 소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의복행동은 장신구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0>은 의복행동이 장신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나타낸 것이다. 장신구를 선택할 때 타집단에 비해 판매원의 영향을 받는 대학생들이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행동은 장신구 구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1>에서와 같이, 의복행동은 장신구 구입시 정보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신구 구입시 색상에 중점을 두는 대학생들은 의복관심도와 심리적인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신구를 백화점에서 주로 구입하는 대학생들이 장신구를 재래시

<표 12> 의복행동이 장신구 구입시 중점사항에 미치는 요인

의복행동	구입중점		가격 (N=35)		디자인 (N=136)		유행 (N=18)		색상 (N=5)		상품이미지 (N=4)		품질 (N=7)		실용성 (N=31)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5.11	a, b	3.01	16.51	a, b	3.60	16.16	a, b	3.29	18.60	b	3.28	13.75	a	5.50	16.00	a, b	3.60	14.70	a	3.38	2.08*
동조성	14.45		2.69	14.81		2.85	15.83		2.09	16.80		3.96	14.50		5.00	15.42		3.15	14.48		2.61	0.88
자기평가성	14.22		3.00	13.36		2.75	14.55		2.22	13.20		3.34	14.25		1.25	15.42		1.90	14.25		2.04	1.49
심리적의존성	16.65	a, b	3.19	18.02	b	3.11	17.77	b	3.26	19.00	b	3.08	14.50	a	2.64	17.85	b	2.73	15.93	a, b	3.19	2.85**
심미성	17.34		2.86	18.64		3.06	18.22		2.36	17.60		1.51	16.75		4.27	18.28		3.94	17.80		3.34	1.07
정숙성	14.97		3.35	14.65		2.92	15.77		2.46	16.20		3.70	14.75		3.20	16.42		1.61	15.48		2.73	0.92

* a, b 표기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p < .05, **p < .01

<표 13> 의복행동이 장신구 구입장소에 미치는 요인

의복행동	구입장소		백화점 (N=23)		전문점 (N=149)		재래시장 (N=30)		노점, 행사 (N=34)		F 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7.43	b	4.05	16.38	a, b	3.27	14.13	a	3.02	15.02	a, b	3.90	4.37**
동조성	15.52		3.48	15.03		3.48	14.43		2.86	14.08		2.41	1.40
자기평가성	12.73		2.63	13.77		2.81	14.30		2.26	13.94		2.29	1.21
심리적의존성	18.47		2.93	17.36		3.28	16.86		2.94	17.58		3.29	0.91
심미성	18.78		2.57	18.28		2.93	16.90		3.41	19.05		3.19	2.38
정숙성	14.47		2.39	15.10		2.99	15.36		3.16	14.41		3.01	0.68

* a, b 표기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p < .01

<표 14> 의복행동에 따른 소유하고 싶은 장신구 문양

의복행동	문양		동물 (N=21)		식물 (N=25)		기하화 (N=106)		추상 (N=76)		F 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5.80	a, b	3.42	17.12	b	3.10	15.91	a, b	3.74	16.09	a, b	3.27	1.42
동조성	15.00		3.56	15.08		2.25	14.73		2.83	14.96		2.82	0.19
자기평가성	13.85		2.49	13.68		2.37	13.60		2.84	13.93		2.59	0.21
심리적의존성	16.90	a, b	3.37	18.56	b	2.88	17.55	a, b	3.51	17.30	a, b	2.75	1.38
심미성	17.90		3.01	18.56		2.55	18.60		3.29	17.92		2.84	0.97
정숙성	15.66	a, b	3.32	16.64	b	2.67	14.36	a	2.94	15.19	a, b	2.72	3.83**

* a, b 표기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p < .01

장에서 구입하는 대학생들 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3) 의복행동은 장신구 소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신구 문양으로 식물문양을 소유하고 싶은 대학생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도와 심리적 의존성,

정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5>에서와 같이 장신구로 벨트를 소유하고 싶은 대학생은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의복행동에서 의복에 대한 관심도는 의복에 대한 흥미 및 호기심, 유행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복에 가장 밀착된 벨트와 같은 장신구

〈표 15〉 의복행동에 따라 소유하고 싶은 장신구

장신구종류	신발 (N=62)		가방 (N=20)		시계 (N=28)		모자 (N=20)		벨트 (N=5)		우산 (N=2)		선글라스 (N=17)		반지 (N=11)		목걸이 (N=27)		귀걸이 (N=14)		마리핀 (N=13)		머리띠 (N=4)		팔찌 (N=5)		핸드폰, 호출기 (N=6)		F-Value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의복관심도	15.85	3.58	15.75	3.73	15.32	3.41	15.75	3.69	18.80	1.30	12.50	6.36	16.35	3.39	17.36	5.02	16.62	2.92	16.71	3.68	16.61	3.42	15.75	2.63	16.40	3.50	14.66	3.93	0.99
	a, b, c		a, b, c		a, b, c		a, b, c		c		a		a, b, c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등조성	14.16	2.92	15.00	3.40	14.82	2.62	15.80	3.73	15.40	2.51	14.00	1.41	14.41	1.90	16.00	2.64	15.37	2.95	14.42	2.13	14.61	2.06	15.50	2.64	16.00	2.00	15.50	3.01	0.86
자기평가성	13.66	2.75	14.20	2.87	13.64	2.46	13.60	2.87	14.80	3.27	13.00	2.82	13.05	2.86	13.81	2.78	13.59	2.64	14.07	2.97	14.63	1.98	12.25	4.57	14.20	2.49	14.33	1.50	0.39
심리적의존성	17.93	3.17	16.75	3.10	16.71	3.34	17.10	2.93	18.00	3.00	16.50	7.77	17.58	2.59	19.63	2.94	16.77	3.20	19.42	2.53	18.15	3.46	16.75	2.63	16.80	5.06	17.00	2.19	1.84*
	b, c		b, c		b, c		b, c		b, c		b, c		b, c		c		b, c		b, c		b, c		b, c		b, c		b, c		
심미성	18.61	3.14	18.15	2.30	17.10	3.51	18.15	3.19	18.80	2.49	16.00	1.41	18.35	1.93	19.09	3.91	18.70	2.52	19.57	3.39	18.46	2.98	17.25	1.70	18.60	3.36	16.50	3.33	1.24
	c		c		a, b		c		c		a, b		c		c		c		c		c		a, b		c		a, b		
정숙성	15.27	3.20	15.30	3.01	15.17	2.40	14.80	3.18	14.60	1.51	12.00	2.82	14.11	2.42	14.00	4.21	14.88	2.70	15.07	3.42	14.69	3.14	15.25	0.50	15.80	2.38	14.33	3.77	0.55
	a, b		a, b		a, b		a, b		a, b		a		a, b		a, b		a, b		a, b		a, b		a, b		a, b		a, b		

* a, b, c 표기는 Duncan 사후검증 결과임. * p < .05

와의 조화에도 관심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신구로 반지를 소유하고 싶은 대학생들은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 이것은 의복행동에서 심리적 의존성이 신체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을 때, 반지가 그 대상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장신구로 귀걸이를 소유하고 싶은 대학생들은 심미성이 높았고, 팔지를 소유하고 싶은 대학생들은 정숙성이 높았다. 귀고리는 착용자가 주의를 집중함을 시사하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귀고리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옷을 입지 않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고, 서구여성들은 외출시 화장을 하고 귀고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으로 볼 때(신상옥 외 3인, 2000), 심미성이 큰 대학생들은 귀고리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었다. 의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대학생은 장신구를 선택할 때 친구의 영향을 받았고, 주로 백화점에서 장신구를 구입하였으며, 장신구로 벨트를 소유하고 싶어했다. 장신구 구입시 색상에 중점을 두는 대학생들은 의복관심도와 심리적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신구 문양으로 식물문양을 소유하고 싶은 대학생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도와 심리적 의존성, 정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생들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은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청년기의 의생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대학생의 의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측면에서 올바른 지도와 후행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 의복행동, 장신구 착용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K대학에 재학중인 남녀 대학생 241명을 대상으로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봄으로써 대학생의 전반적인 의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의생활 교양교육 측면에서 올바른 지도를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의복행동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관심도와 심리적 의존성, 심미성, 정숙성이 높았고, 학년에 따라서는 1학년이 2학년에 비해 의복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높았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서 성별, 학년, 소속대학은 장신구 착용을 설명해주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장신구를 구입할 때 학년이 낮을수록 대학생들은 주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장신구를 보고 구입 정보를 얻고 있었다. 여학생이고, 인문사회과학 대학생일수록 장신구 구입시 디자인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여학생이 장신구 구입장소로 전문점을 가장 선호하였다. 남학생이 신발, 시계, 모자 등 실용적인 장신구를 소유하고 싶어했다.

의복행동은 대학생의 장신구 착용에 영향을 주

참 고 문 헌

- 강선자(1975), 장식 Design, 형설출판사.
 강혜원(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복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논문 제11집.
 고애란·김양진(1996), 청소년의 의복행동에 대한 자아중심성, 자의식, 신체만족도의 영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4호.
 김광경(1973), 1학년 여대상의 가치관과 의상 관심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김경희·임숙자(1983), 여대생의 사회적 가치관과 의복착용동기와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제7권 제2호.
 박기완(1986), 패션코디네이트, 유신문화사.
 박찬부(1981), 여대생의 의복형태와 자아의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논문집 제4집.
 박혜선·김화순(1998a), 의복 태도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2권 2호.
 _____(1998b), 의복태도와 의복구매행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2권 7호.

- 신상옥·오경화·이선희·나영주(2000), 현대 패션과 의생활, 교문사.
- 심경진(1996),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른 의복행동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재엽(1987),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 결정변인에 관한 다변량 분석,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1983), 예의, 정숙성과 심미성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관련된 심리적 변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재(1991), 한·미 대학생 및 교포 대학생간의 의복태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5권 2호.
- 이은경·박은순(1998), 신세대 라이프스타일이 신세대의 패션에 미친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7권 2호.
- 이은미(1984), 여자 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 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숙·박재옥(1997), 여대생의 자아조정 수준에 따른 상황별 자아이미지, 의복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7호.
- 이은영(1995), 복식의장학, 교문사.
- 이호정(1996), 의류상품학개론, 교학연구사.
- 이희승(1986),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임경복(1997), 인지적·평가적 자아개념이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의 쇼핑동기, 의복관심, 의복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1권 4호.
- 임경복·임숙자·조진숙(1995),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4호.
- 임춘봉(1974), 대학생의 자아개념과 의상행위와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任明美(1984), 옷과 장신구와 옷입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경춘사.
- 정희용(1987), 노년기 여성의 자아 지각과 의복관심과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성래·정명선(1999), 청소년의 상표지향성에 따른 의복구매행동, 의류학회지 Vol. 23, No. 2.
- 車珍姬·金在淑(1995), 성역할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연구 -대전, 충청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19권 5호.
- 최옥자(1982), 장신구 -한국의 복식-, 교학사.
- 최은영(2000), 중·고등학교 여학생의 의생활 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명숙·이미경(1992), 어머니의 의복행동이 자녀의 의복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16권 1호.
- B. L. Feather, B. B. Martin & W. R. Miller(1979), Attitudes Towards Clothing and Self-Concept of Physically Handicapped and Able-Bodied University Men and Woma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March, No. 1. 7., No. 4.
- J. C. Flügel(1971), The Psychology of Clothes, N. Y.: International Univ. Press Inc.
- M. J. Horn(1975),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